

정읍 동학농민공원 '로컬 100' 선정

문체부 지역문화매력 100선

'불멸, 바람길' 등 매년 5만명 찾아 혁명의 도시 정읍 상징 자리매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전봉준 장군 및 동학농민군상인 '불멸, 바람길'이 지역문화매력 100선이라 불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 100'에 선정됐다 2일 밝혔다.

'로컬 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매력 자산을 발굴·육성·확산하기 위해 지역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2024년까지 2년간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1894년 5월11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최초로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인 황토현전적지 부지에 건립된 기념공원에는 이를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 추모관, 기념물 등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한 동학농민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투조·환조의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불멸, 바람길'이 건립돼 있다.

이 기념물들에는 매년 5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등 혁명의 도시 정읍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정부 또한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5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월11일 '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정읍시 역시 같은 날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신앙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이 저

음 시작된 혁명의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분포한 곳"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선양사업에 주도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220억 투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중앙부처·광역·기초단체 협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남원시가 220억원 규모의 지역 활력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전북도와 남원시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기약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균형있는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지난 6월, 21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였고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 총 22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운봉읍 용산리 일원 3만 3992㎡ 부지에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주민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갖춘다.

시는 다부처 연계협력 방식의 지역활력타운 사

업을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남원시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리산 활력타운은 천혜의 자원인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지척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마음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차별화되고 살기 좋은 활력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교육청 초·중등 79팀 '수업나눔 박람회'

4일... 학교수업 혁신사례 공유

전북교육청이 교사의 성장과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2023년 전북교육청 수업 나눔 박람회'를 4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연다.

'달리진 수업, 변화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업사례 공유로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 나눔에는 초·중등 79팀, 수업사례 전시 부스 30팀, 에듀테크 전시 부스 60팀 등 초·중등 교사 260명이 직접 참여한다.

특히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사례를 중점적으로 선보여 AI기술과 다양한 교육용 SW들이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업 나눔 사례로는 ▲AI 챗봇을 활용한 영어 환경 동영상 만들기(전주화정중 방다미) ▲우리지역 설화를 찾아 떠나는 답사 수업 사례(전주사대부고 백지영)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진

로탐색 및 주책 제작 수업(산내중 유일환) ▲챗GPT를 활용한 토론 토의 수업(양현고 손영란) 등이 있다.

또 교사교육센터 앞마당에서는 수업 고민 상담 우수 수업 사례와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30개의 전시 부스도 준비된다.

초등수석교사회의 '수업 고민 상담 및 수업 컨설팅', 초등성교육연구회의 '메타버스(ZEP)를 활용한 성교육·보건 수업 사례', 영양교과연구회의 '즐겁게 영양을 가르치다', 중등수석교사회의 '교과별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산출물 전시', 거꾸로 교실 미합성(미래 교실을 찾는 샘)의 '에듀테크 활용 거꾸로 수업 산출물 전시' 등이 눈에 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이번 수업 나눔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미래교육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행사가 의미가 크다"면서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 연수, 수업연구회, 수업 공개와 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7가지 세계유산 VR 가상여행' 서비스

고창군의 세계유산 관련 주요 12개 명소를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고창 방문의 해 홈페이지의 '7가지 세계유산 VR 가상여행' 코너가 본격 서비스 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VR가상여행에서는 고창군의 ▲지질공원 명소(병마루, 선운산-천마봉-마애불-진흥굴) 등 5개소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고인돌유적 ▲삼사르고창갯벌센터 ▲고창판소리 관련 ▲고창농악관

련 ▲생물권보전지역관련 5개소로 구성됐다. 실감나는 화면이 구현되며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세계유산의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4차 산업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친란한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국악원·농악전수회관 1년 같고닭은 작품발표회 심청가·수군춘춤 등 선보여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회관이 1년간 같고닭은 국악·농악실력을 시민들 앞에 선보인다.

정읍시는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회관이 오는 7일 오후 3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2023 작품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판소리반 윤상호 교수의 '강산 제 심청가'를 시작으로 대금반 김중배 교수의 '대금산조'와 가야금반 장승희 교수의 '가야금산조'가 박상주 교수의 고수 장단에 맞춰 펼쳐진다.

이와 함께 무용반 김일환 교수의 '수군춘'과 사립농악단의 협업으로 손석우 강사의 '정읍농악판굿 부포놀이'까지 총 6명의 발표가 진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전통 국악의 선율과 장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나이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운영되는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회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운곡습지 생태연못.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최우수'

시·군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고창 운곡람사르습지가 전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고창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 생태관광지 대표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21일부터 3일간 도내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자원우수성, 시장성, 주제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고창운곡람사르습지와 장수뜰농생이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내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비 12억원과 인센티브 5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 받게 됐다.

고창군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주민이 참여한 고창군생태관광주민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도요장터, 생태법상, 습지생태교육, 마을함바니해설사, 반딧불이 여행 등 다채로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관광지 홍보 및 주민 소득창출에 힘써왔다.

또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탐방로 정비, 생태개울복원, 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마을 조성 등 생태관광지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및 운곡습지 국가생태탐방로(신설)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운곡습지 탐방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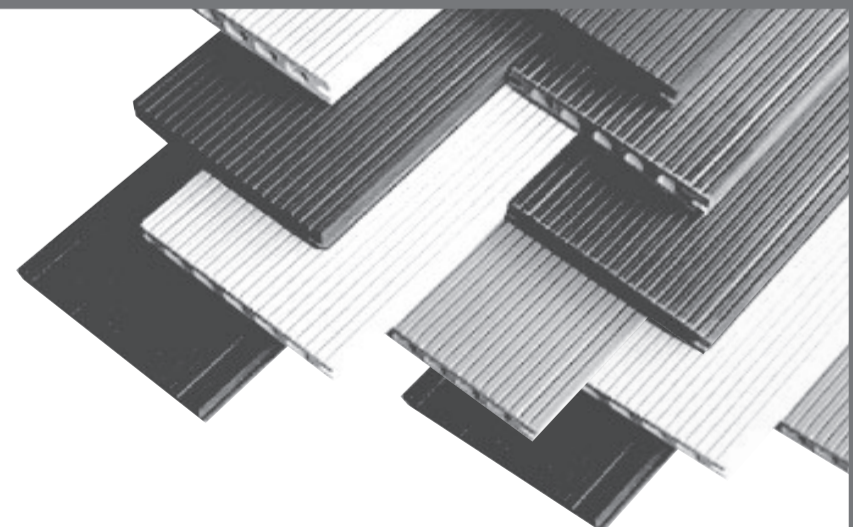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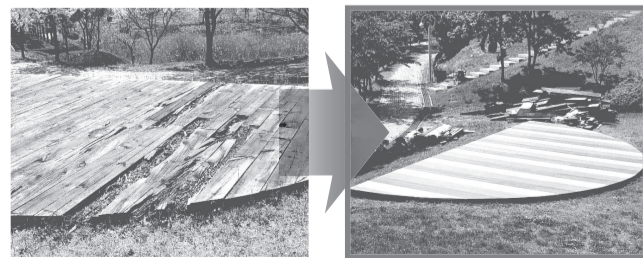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